

‘UH-1H 항공기’ 46년 해양주권 수호 마침표

1978년부터 14대 도입...10만여시간 비행·830여회 임무 수행 최근 해군 목포기지서 퇴역식...“백전노병 필승정신 계승될 것”

해군의 UH-1H 항공기가 46년 동안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마무리하고 퇴역했다.

9일 해군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해군 제609교육훈련전대가 위치한 목포기지에서 UH-1H 항공기 퇴역식을 거행했다.

퇴역식은 김정태(대령) 609교육훈련전대장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역대 지휘관, 역대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 주요 지휘관과 참모, 장병과 군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퇴역식 행사는 국가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제원 및 공적 소개, 퇴역 명령 낭독, 표창 수여, 항공사령관 훈시, 참모총장 축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UH-1H 항공기는 1978년부터 14대가 도입돼 인원이송, 기동군수 지원작전, 특수전, 산불진화 등 해군 항공작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했다.

특히 1981년에는 독도기지 보강사업인 ‘별구사업’에 투입, 107t의 물자를 양륙하고 작전을 수행했으며 1987년 태풍 다이노 내습 당시에는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등 830여회의 작전임무를 성공 수행했다.

UH-1H는 2021년부터 교육용 항공기로 전환돼 지금까지 정예 해군 조종사 양성 임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6월19일 마지막 교육·훈련 비행을 끝으로 퇴역할 때까지 약 10만여시간 동안 지구를 약 420바퀴 돌 수 있는 1천700만km를 비행하며 대한민국 바다를 지켰다.

하성욱 항공사령관은 김정태 609전대장이 대독한 훈시를 통해 “UH-1H는 그동안 인원 이송, 기동군수 지원작전, 특수전, 산불 진화 등을 통해 해군 항공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며 “UH-1H는 해군 항공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명예로운 퇴역을 맞게 됐지만 바다를 향해



해군항공사는 최근 해군 제609교육훈련전대가 위치한 목포기지에서 ‘UH-1H 항공기 퇴역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퇴역한 해군 UH-1H 항공기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한 모습. <해군항공사 제공>

함께 출격하던 당당한 모습은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용모(대장) 해군참모총장은 사회자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UH-1H는 1978년 도입된 이래 지난 46년간 대한민국 영해수호를 위해 하늘을 누비며 공중돌격, 정찰, 군수 지원, 탐색·구

조, 산불 진화 등 부여된 모든 임무를 완수한 자랑스러운 ‘백전노병(百戰老兵)’이었다”며 “영해 수호에 평생을 바친 UH-1H의 ‘필승항공’ 정신은 Bell-505, P-8A, MH-60R 등 새로운 전우들에게 계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박규석 여수경찰서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

여수경찰서는 “최근 박규석 서장이 이순신광장에서 유관기관·협력단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했다.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을 주제로 전국에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인식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규석 서장은 명경식 여수시체육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효인 국제라인스협회 355-B31지역 위원장과 문정훈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추천했다.

/여수=김진선기자

하나님의 교회, 광주·전남 295세대에 식료품 전달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가 광주·전남 관공서를 통해 홀몸어르신·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인·청소년가정 등 295세대에 식료품을 전달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9일 하나님의 교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북·광산구에 식료품 105세트를, 전남에서는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보성군, 무안군 등에 총 190세트를 각각 전달했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들은 지난 4일 광주 남구 월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식료품 25세트를 건네며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사진>



상자에는 소고기미역국·황태국밥·사골곰탕 등 가정간편식과 햇감면·참기름 등 식재료 총 2

0가지 먹거리가 담겼다. 김수정 월산동 행정복지센터장은 “도움의 손

길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선물을 전달하겠다”며 “매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나눔에 참석한 정옥희씨는 “추석을 맞아 뜻깊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돼 뿌듯하다”며 “서로 정을 나누는 활동인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미소 지었다.

한편, 175개국 7천800여 지역에 설립된 하나님의 교회는 370만 신자가 있는 글로벌 교회로 명절맞이 이웃돕기 외에도 광주·전남 전역에서 환경 정화, 헌혈, 농가 일손 지원, 태풍·폭설·폭우 피해복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나주시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등 각계에서 표창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주성학기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감염병 검사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충북 오송에서 열린 ‘2024년 질병관리청-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 협력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감염병 검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진단검사 발전을 주도한 기관을 발굴, 포상에 실현실업추진사업의 영예를 높이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국내 최초 감염병 진단센터를 개청했다. 2년 연속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검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신종 및 매개체 전파·해외 유입 감염병 총력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굳건히 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동구자원봉사센터-kt estate ‘한가위 온기 나눔’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kt estate와 kt 그룹 희망나눔재단이 후원한 과일 선물세트와 마스크를 동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온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후원 활동을 지속해 온 kt estate와 kt 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이번에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나섰다.

선물세트 포장 및 전달에 함께한 이금자 kt estate 호남고객단 단장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상권 이사장은 “kt estate 호남고객단에 게 임팩 동구청장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에도 온기 나눔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순권 센터장은 “서민이 살아야 기업이 발전한다는 경제학의 격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원기업을 발굴하며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안재영기자

석산장학재단, 105명에 장학금 1억1천만원 수여

(재)석산장학재단(이사장 박동호·광성물류 대표이사)은 지난 6일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 2층에서 2024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105명에게 1억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동호 이사장을 비롯해 송운선 석산학원 이사장, 박장수 초대 장학재단 이

사장, 조남열 총동문회장, 임중호 재경총동문 회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희균 석산고 교장,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석산장학재단은 동문들의 십시일반으로 지난 2014년 설립됐으며 10년 동안 1천700명에게 장학금 11억9천200만원을 수여했다.

/김대기자

(주)나눔테크, 남구 돌봄이웃 돕기 2천만원 기부

광주 남구는 “최근 (주)나눔테크가 남구 돌봄이웃 지원을 위한 기부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북구 월출동에 위치한 (주)나눔테크는 의료기기(자동심장충격기, 골밀도진단기, 무릎교정치료완화기 등) 제조 업체로, 지난해 11월에도 남구에 2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관내 돌봄이웃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는 손길을 건넬 바 있다.

남구는 이번에 기탁받은 성금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무진 (주)나눔테크 대표는 “기업의 이름처럼 생명을 살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나눔에 동참해 준 (주)나눔테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성학기자



2024 KT&G 상상 유니-브로드웨이 청춘일기 ‘성료’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은 9일 “지난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대학생 창작 뮤지컬 프로그램 ‘2024 KT&G 상상 유니-브로드웨이 청춘일기’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상 유니-브로드웨이 청춘일기’는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이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의 사연을 공모 받아 시나리오화한 창작 뮤지컬 ‘청춘일기’는 그간 관객들로부터 사랑과 우정, 대학 생활 등 20대 청춘의 공감스토리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안재영기자

본사손님

▲박성주 광주지방경찰청장